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c.net

주일오전설교 | 헌금, 믿음, 사랑, 복종

[고전 16:1] 성도를 위한 연보헌금에

헌금에 대한 교훈이다. ‘성도를 위한’이라는 말은 헌금의 목적을 보인다. ‘연보’라는 원어는 ‘모금’이라는 뜻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구제헌금을 부탁하였었다 (행 24:17; 고후 8, 9장). 성경에 계시된 교회의 헌금의 목적은 전도와 구제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전도와 구제를 위해 헌금하기를 힘써야 한다.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같이’라는 말씀은 사도들의 교훈이 어느 한 지역뿐 아니라, 모든 지역의 모든 교회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임을 보인다.

[2절]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利)를

‘매주일 첫날’은 일요일 곧 주일이다. 이 날 각 사람이 이익을 얻은 대로 헌금하여 저축하라는 지시는 초대 교회가 이 날 공적 집회로 모여 헌금했음을 암시한다. 사도시대 직후 속사도들의 글들에 보면 초대교회들이 더 이상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았고 일요일 곧 주일에 공적 예배를 위해 모였던 것을 알 수 있다.

[3-4절] 내가 이를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

사도 바울은 헌금을 취급할 때 교인들의 시험과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 자기가 직접 관계하지 않고 그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들을 보내도록 처리했다. 한글개역성경에는 ‘인정한 사람’이 단수명사이지만, 원문에는 ‘인정한 사람들로 복수명사이다. 헌금은 교회에서 인정받는 두 사람 이상에 의해 바르고 깨끗하게 계수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교회의 봉사자가 마귀의 시험을 받아 하나님께 드리진 헌금을 취하거나 오용한다면 그에게 큰 화가 될 것이다.

[5-7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교제하기를 소원하였다. 그는 지나가는 길에 그들에게 잠시 들리기를 원하지 않고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함께 지내며 겨울도 지나기를 원하였고, 또 그들이 그를 그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기를 원했다. 성도의 교제는 얼마나 아름답고 사모할 만한 것인지! 거짓과 미움과 이기주의로 가득한 세상에서 참된 교회처럼 진실과 사랑을 볼 수 있는 곳이 또 어디에 있겠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뜻을 행하는 진실한 성도들에게서만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기대할 수 있다.

답고 사모할 만한 것인지! 거짓과 미움과 이기주의로 가득한 세상에서 참된 교회처럼 진실과 사랑을 볼 수 있는 곳이 또 어디에 있겠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뜻을 행하는 진실한 성도들에게서만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기대할 수 있다.

[8-9절]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본절은 바울이 이 서신을 쓴 대략적 시기와 장소를 보여준다. 그것은 사도행전 19장에 해당하며 에베소에 머물 때이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첫째는 그의 사역이 에베소에서 큰 열매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둘째는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내게 광대하고 공효(功效)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라는 말씀은 그의 전도 사역에 큰 열매가 있었음을 뜻한다. 사도행전 19:19-20은,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고 증거한다.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의 문이 열려야 한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힘있는 말씀의 사역,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이다.

[10-12절]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디모데는 바울처럼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그들 가운데 머물게 하고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자기에게 오게 하라고 권하였다. 여기에 복음사역자들을 존중하고 예우해야 할 성도들의 의무가 있다. 복음사역자들을 위하는 것은 곧 주님을 위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도 그에게 권했지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고 말한다. 그는 아볼로에게 무엇을 명령하거나 그의 심령을 지배하려 하지 않았다. 주의 사역자들은 겸손히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 또 주의 일은 자원적으로 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야.

사도 바울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

하여라”고 말한다. 원문에서 본절은 네 개의 명령어로 되어 있다. 첫째는 ‘깨어라’이다. 이 세상은 악하고 마귀와 악령들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사방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주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 있으라고 교훈하셨다(마 24:42). 깨어 있는 생활은 믿음, 소망, 사랑의 정상적 신앙생활을 의미한다. 사람이 죄를 짓고 육신적 쾌락에 빠지면 영적으로 헤이해지고 잠이 드는 것이다.

둘째는 ‘믿음에 굳게 서라’이다. 성도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로 낙심하고 믿음을 잃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려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

셋째와 넷째는 ‘남자다워라’와 ‘강건하여라’이다. 하나님 없고 부도덕하며 심지어 성도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 의와 선을 행하려면 우리는 담대하고 강건해야 한다.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다(요 16:33).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교훈하였다(엡 6:10).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교회에 필요한, 그리고 모든 시대에 모든 교회들에 필요한, 중요한 덕은 사랑이다. 고린도교회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함으로 일치단합하여야 했다. 사랑은 이상적인 인격의 덕이다. 우리 속에 참된 사랑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덕을 세우며 유익을 끼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15-18절] 형제들아, 스테바나의 집은 곧

스테바나의 집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바쳐진 가정이었다. 스테바나, 브르나도, 아가이오 등은 교회의 봉사자들이었던 것 같다. 그들은 바울을 찾아왔고 정신적으로 또 아마 물질적으로 그를 돕고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바울과 또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 이것은 아첨하는 칭찬이 아니고 진심에서 나온 인정이다. 바울은 성도들이 이 같은 자들에게와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고 또 이런 자들을 알아주며 인정하라고 권면했다. 모든 성도들

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복음의 일을 위해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헌신한 봉사자들을 존중하고 알아주고 인정하고 사랑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 헌신된 자들을 세우셔서 자기의 양들을 지키시고 양육하게 하시고 교회가 진리 안에서 바르고 질서 있게 진행되기를 원하신다.

[19-21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의 가족들로서 서로 진심으로 그리고 거룩한 사랑으로 교제하고 문안해야 한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救贖)함을 얻고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믿어 구원 얻은, 온 세계의 성도들은 한 교회를 이룬다. 거기에는 아시아의 교회들과 유럽의 교회들의 차별이 없다. 또 사도 시대에는 성도의 ‘집에 있는 교회’가 있었다. 외적으로 훌륭한 건물이 있어야만 교회가 아니고 집에서 모이는 교회도 참된 교회일 수 있다. 교회의 교회다운 점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고 섬기며 순종하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데 있다.

[22-24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마지막으로, 바울은 두 가지 내용을 말한다. 첫째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나 저주를 받을지 어다”라는 말씀이다. 이것은 사랑 없이 내뱉은 경박한 저주의 말이 아니다. 이것은 주를 사랑하는 것이 선택 사항이 아니고 모든 성도에게 필수적 사항임을 강조하는 말이다.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표현한 것이다.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그 분 외에 이 세상에서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 없다. 그 분 외에 아무 곳에서도 우리는 삶의 참된 의미와 위로를 찾을 수 없다. 그는 참으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다. 그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신 주님이시다.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기에 마땅한 죄인이었지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해주셨다.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자라면 어찌 주를 사랑치 않을 수 있겠는가!

둘째는 ‘주께서 임하시느니라’는 말씀이다. 이 말은 원어로 ‘마라나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람어로서 ‘주여, 오소서’라는 뜻이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말이다.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말로 끝난다(계 22:20).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일이 완성될 것이다. 그가 다시 오실 때 주를 사랑한 자들은 영광과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 주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사랑하던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의인들과 악인들,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22:12,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생보상, 보응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본장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본장은 헌금에 대해 교훈한다. 첫째, 헌금은 교회의 공집회의 한 중요한 순서이다. 둘째, 헌금의 용도는 전도와 구제를 위한 것이다. 헌금은 전도자들과 교회의 전임봉사자들의 생활비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고 또 교회 안의 물질적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셋째, 헌금은 깨끗하고 덕스럽게 관리되어야 한다. 헌금의 계수와 관리는 한 사람에게 의해 이루어짐으로 사람들의 의심과 의혹을 일으키게 해서는 안 된다. 헌금의 계수와 관리는 교회에서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깨끗하고 정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헌금에 대한 범칙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큰 죄가 된다. 넷째, 성경이 보이는 헌금의 기준은 풍성하게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득의 온전한 십일조와 헌물을 드리게 하셨다. 그것은 신약시대에도 헌금의 모범이 된다. 주 예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마 6:21).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7에서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같이 이 은혜(헌금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고 말했다.

둘째로, 우리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귀히 여기며 사모하며 나누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며 고린도교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겨울을 지나기를 원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 교회의 교회사적인 점은 성도들 상호간에 서로 사랑하는 데 있다.

셋째로, 우리는 전도자들을 위해 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힘있게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또 전도자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그들에 대한 합당한 예절을 갖추어야 하고 또 그들에게 복종하고 또 그런 자들을 인정하고 사랑해야 한다. 물론,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은 부득이 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야 한다.

넷째로, 우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고 남자답게 강건해야 한다. 우리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 있어야 한

다. 그것은 정상적 신앙생활을 함을 뜻한다. 또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약속들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 또 우리는 남자다워야 하고 강건해야 한다.

다섯째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사랑해야 한다. 그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다. 바울은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섯째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자. 주께서 하늘로부터 영광 가운데서 다시 오시면, 교회 안팎의 모든 일들과 온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판단하시고 선약간에 보응하실 것이다.

주일오후설교 찬송과 선행, 복종과 기도, 축원

[히 13:14-15] [이는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우리의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고난의 생활일지라도, 장차 영광의 천국에 들어갈 것이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과 죄사함은 우리의 찬송과 기쁨의 이유이다.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창조하신 목적이며(사 43:21) 또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신 목적이다. 또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이다.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또 우리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고 힘써야 한다. 이런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성경의 요지는 첫째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으라는 것과, 둘째로 서로 사랑하고 선을 행하라는 것이다. 선행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열매이다. ‘서로 나눠주기’라는 원어(코이노니아)는 ‘교제, 구제, 구제 헌금’이라는 뜻이다. 선행과 구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힘써야 할 내용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들이다.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회중의 인도자들, 즉 목사들과 장로들은 교인들의 영혼들을 위하여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자들처럼 깨어 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들의 임무이다. 그러므로 교인들은 그들에게 순종해야 한다. 그럴 때 인도자들은 교인들을 위해 즐거움으로 일하게 되며 근심으로 하게 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이 교인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교인들은 목사들과 장로들이 무거운 마음으로 봉사의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18-19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 . .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되는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주 기도의 요청을 하였다(엡 6:19; 살전 5:25; 살후 3:1). 히브리서 저자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한 이유는 두 가지이었다. 첫째로, 그는 그와 그의 일행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위해 힘쓰고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행하는 선한 일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둘째로, 그는 더 속히 그들에게 돌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이었다. 저자는 히브리서 수신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가 지금 이곳에 있다. 설교자는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며, 교인들은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20절]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 . .

히브리서 저자의 기원은 예수님에 관해 세 가지를 증거한다. 첫째, 예수님은 양의 큰 목자이시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부르셨었다(요 10:11). 베드로는 예수님을 ‘목자장’이라고 불렀다(벧전 5:4). 우리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의 크시고 참되신 목자이시며, 인간 목사들은 교회의 작은 목사들에 불과하다.

둘째, 예수님은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리셨다. 이것은 히브리서의 대주제이기도 하다(히 9:12). 구약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의 그림자이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새 언약은 수정될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구원을 얻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역사적 사실이다. 그가 죽고 마셨다면 그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크게 손상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증거하였다(행 17:31).

본문은 또 하나님을 ‘평안의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세상에서 평안은 죄로 인하여 상실되었었다(사 57:21; 롬 3:17). 그러나 주 예수의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죄사함 받은 심령들 속에 평안이 임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평안의 하나님이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선행과 순종을 온전케 하시기를 소원하는 기도 내용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도들의 선행과 순종의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선행과 순종은 단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시

는 힘으로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여기에 우리의 기도의 이유가 있다.

[22-25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히브리서 저자는 이 서신을 받는 자들에게 그의 권면을 용납하라고 말한다. 이것은 겸손한 태도이다. 그는 본 서신을 ‘간단히 쓴’ 서신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보기에 이 서신은 길지만, 이것을 ‘간단히 쓴’ 서신이라고 표현한 것은 저자가 그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하고자 한 내용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았음을 보인다. 우리는 성경책을 읽을 때 ‘너무 긴 내용’, ‘너무 많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많은 내용들을 ‘간추린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한다.

히브리서 저자는 디모데를 ‘우리 형제 디모데’라고 표현한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3:2에서 디모데를 ‘우리 형제’라고 표현했다. 그 저자는 디모데와 매우 친근한 사이임에 틀림없다.

서신 수신자들은 두 부류로 표현된다. 첫째는 ‘인도하는 모든 자들’ 즉 목사들과 장로들이며 둘째는 ‘모든 성도’이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때로부터 교회에 목사들과 장로들을 세우셨다(행 14:23; 20:28).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이라는 말은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도 복음이 증거되었음을 보인다. 본 서신은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다.

본문은 몇 가지 교훈을 준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창조하신 목적이며 또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다. 찬송은 우리의 입술이 맺을 수 있는 가장 선한 열매이다.

둘째로, 우리는 선행과 구제를 힘써야 한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세상에서 선한 일들을 많이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선행과 구제는 구원받은 자들이 맺어야 할 아름다운 열매들이다.

셋째로, 교인들은 그들의 인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 물론 회중의 인도자들, 즉 목사들과 장로들은 교인들을 위해 마치 자신이 결산할 자인 것처럼 깨어 있어야 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다해야 하지만, 교인들은 그 인도자들이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고 근심으로 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순종해야 한다.

넷째로, 우리는 이 모든 선한 일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해야 한다. 선행과 순종이 단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므로 우리는 이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